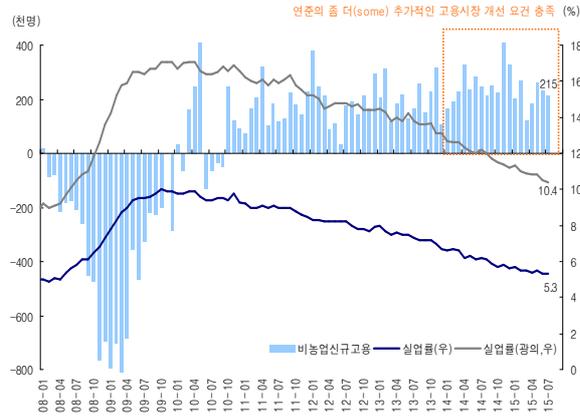


기간조정 국면 연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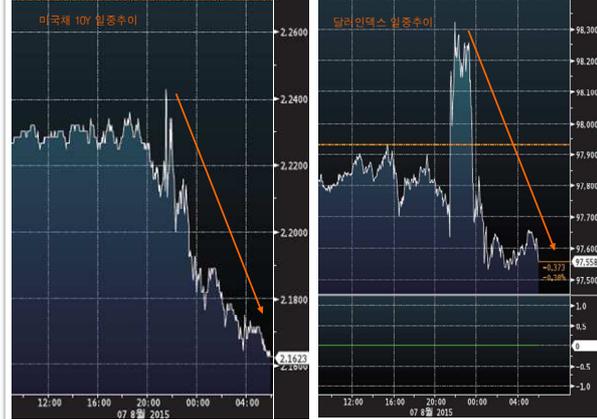
1. 미국 7월 고용지표, 9월 첫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



■ 7월 비농업신규고용 전월비 +215K, 5~6월 신규고용 +14K 상향조정
- 시장 예상수준인 223K를 소폭 하회했으나, 양적 고용의 절대수준은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요건을 충족

■ 국내증시 영향력은 중립적, 현 KOSPI 레벨은 연준의 연내 한차례 금리인상을 상 당부분 기반영 중, 7월 고용지표 결과가 시장의 금리인상 예상시점을 앞당기거나 혹은 지연시키지 않았으므로, 단기 가격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

2. 달러화, 미 장기금리 단기 추가 상승여력 제한적



■ 최근 미국 달러인덱스와 장기금리는 경기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상승여력 제한
- 현 가격레벨에서는 연내 한 차례 금리인상 이벤트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음은 시사

■ 9월 FOMC회의 이전까지,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며 달러화 강세기조 는 유지될 것. 다만 9월 금리인상 단행 시, 재료소멸 관점에서 달러화 강세기조는 진 정될 가능성에 무게

3. 금주 KOSPI, 기간조정 국면 지속 전망



■ KOSPI 기간조정 국면 지속 전망, 연준 금리인상 시행 이전 외환시장 및 상품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 여전

■ 다만 MSCI KOREA Fwd PBR 0.89배로 금융위기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, 현 레벨에 서 추가적인 가격조정 보다는 기간조정 가능성에 무게

■ KOSPI 대형주의 상/하방 모멘텀이 제한된 국면에서 증시의 수급주체는 국내자금이 주도함, KOSDAQ 및 중소형주주의 수급수혜가 지속될 전망

4.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?

■ 7월 비농업신규고용, 양적 고용의 절대수준은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요건을 충족
- 국내증시 영향력 중립적, 연내 한차례 금리인상 스케줄에 변화가 없기 때문

■ 최근 미국 달러인덱스와 장기금리는 경기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상승여력 제한
- 현 가격레벨에서는 연내 한 차례 금리인상 이벤트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음은 시사

■ KOSPI 기간조정 국면 지속 전망, 연준 금리인상 시행 이전 외환시장 및 상품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 여전, 다만 MSCI KOREA Fwd PBR 0.89배로 금융위기 수준까지 근접, 현 레벨에서 추가적인 가격조정 보다는 기간조정 가능성에 무게

■ KOSPI 대형주의 상/하방 모멘텀이 제한된 국면에서 증시의 수급주체는 국내자금이 주도함, KOSDAQ 및 중소형주주의 수급수혜가 지속될 전망

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,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.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를 바라며,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, 복제, 인용, 변형할 수 없습니다.